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4호 【루게 제2482호】 주제 104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선봉팀과 해불팀사이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선봉팀과 해불팀사이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일성경기장은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경기를 보게 된 관람자들의 환희와 걱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 주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최룡해 동지, 최태복 동지, 김양진 동지, 박범기 동지, 김평해 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체육부, 인민군, 청년학생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관람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선봉팀의 먼저차기로 경기가 시작되였다.



선수들이 재치있는 공다루기기술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득점기회를 마련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선봉 이겨라!>, <해불 이겨라!>를 웨치며 힘찬 고무와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경기는 선봉팀이 3: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관람자들은 높은 체육기술과 완강한 공격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선수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해주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축구경기를 보아주시며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체육강국건설과 나라의 부강번영에 참담게 이바지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선수가 첫 득점을 하였다. 선봉팀 선수들은 기세를 울리며 경기속도를 높여나갔다. 25분경 선봉팀의 7번선수가 공격마당 왼쪽구역에서 자기 팀 선수가 넘겨준 공을 강하게 차넣은것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이어 34분경 선봉팀의 공격수 15번 선수가 또다시 득점함으로써 전반전 경기는 3:0으로 끝났다. 경기휴식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형항공기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각이한 모형항공기들이 경기장상공에 비행자세, 고도,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수직비행을 비롯한 난도높은 기교비행들을 펼치고 속포를 터쳐올리며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어 후반전경기가 시작되였다. 해불팀 선수들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들이대었다.

불의적인 차넣기와 역습속공에 의한 문전돌입 등으로 연속 상대팀을 압박하던 해불팀에서 후반전 33분경 상대팀 문전앞에서 벌어진 혼전속에 단번 차넣기한 볼이 그물을 흔들어

서 비행자세, 고도,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수직비행을 비롯한 난도높은 기교비행들을 펼치고 속포를 터쳐올리며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어 후반전경기가 시작되였다. 해불팀 선수들은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들이대었다.

불의적인 차넣기와 역습속공에 의한 문전돌입 등으로 연속 상대팀을 압박하던 해불팀에서 후반전 33분경 상대팀 문전앞에서 벌어진 혼전속에 단번 차넣기한 볼이 그물을 흔들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시) 고향 집과 조국

4월의 봄을 안고
꽃속에 묻혀있는 집
여기서 봄빛은 흘러 강산은 화창하고
여기서 봄바람은 불어 이 땅에 꽃들이
피여라

수천줄기의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듯
설레이며 물결지며
고향집뜨락으로 흘러드는
저 끝없는 그리움의 대하를 보며
눈시울 뜨거워지는 이 마음

만경대고향집!
여기서 시작된
영광스러운 세월의 년대들을 더듬으며
고향집을 두고 생각하노라
조국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열려있는 사립문이며
추려놓은 초가이영...
위대한 애국의 력사가
숨쉬며 어려웠던 고향집!

우리 수령님 저 사립문을 나서
백두산을 향해 떠나실 때
조국여어 그대는
20여성상 사진을 넣고 헤쳐야 할
피다나 불바다너머에 있지 않았더라

우리 수령님
해방조국을 안고 오신
고향집의 그 하루밤마저
새 조선 건국을 생각하며 지새우실 때
조국여어 그대는
이 뜨락에
억년추추들을 놓고 일어선것 아니더냐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는것인가
양쪽을 밀어내고 평생을 안아온 지점

동토대를 녹이고 영원한 봄을 안아온 뜨락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운
성스러운 집안에 서있노라

내 정령 어디에 서있는것인가
해돋이지점에 서있노라
조선의 태양이 솟은 집
사회주의 내 조국이 시작된 집이며

태양의 집에
시련을 두고 열연을 두었기에
내 조국을 약동하는 젊음에 넘쳐
쫓길줄 모르는 신념
역세 기상으로 온갖 불의와 시련을 막차며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나니

강성부흥하며 황홀경 신비경을 펼치며
인민의 만복이 백화로 만발하는 나라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이
세계우에 솟은 내 조국
그것은 한평생을 애국으로 불태우신

(시) 푸른 숲의 노래

하늘엔 구름꽃 하얗게 피고
땅우엔 열매익는 풍요로운 가을날
소문불기습 중앙식물원에
우리 수령님 찾아오셨네

반기며 설레이며
세잎소나무, 잣나무들 푸르름을 자랑하고
감나무, 찔방이나무
늦가을의 붉은 열매 드리우고
알다투어 그에게 다가서는가

홍그러운 마음으로 숲속길 걸으시며

우리 수령님의 뜻이었고 리상이었다

내 금지높이 바라보노라
만리대공을 치솟고
우주에 닿은 강국의 위용
십년을 한해에 주름잡으며
기적같이 솟아오르는 거창한 창조물들
불패의 국력을 펼치는 내 나라

1912년 4월 15일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이건만
조선의 태양이 솟은 집
세월이 갈수록
더 정답고 소중해지는 집이며

아, 수령님의 고향집
신귀한 옥을 다듬어 지붕을 얹고
황금을 다듬어 기둥과 벽체를 세운들
이처럼 아름답게 빛날수 있오라

정을 안고 사랑을 안고
끝없이 고향집뜨락에 흘러드는
저 그리움의 대하
천년을 흘러 만년을 흘러 마를줄 모르려나
아, 강성부흥의 조국을 안고
영원무궁 빛날 집이며!

박 상 민

수령님은 환히 웃으시는데
술 우뚝지를 흔들여놓는 마가솔바람에
어느 가지끝에 매달렸던 호두 한알
그이 앞으로 굴러왔네

- 허허 호두나무가
우리에게 열매를 바치누만...

수령님 정원에서 키우신 호두나무
식물원에 옮겨온지 어느덧 몇해
새간난 《자식》을 만나보는 기쁨인가
죽적한 나무를 정답아 물어보시여라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던 이 호두나무
해를 두고
몸소 정원에서 자배우시며
온 나라를 뒤덮을
기름나무를 그리보신 우리 수령님

이른새벽 깊은 밤
어린 나무를 가꾸시며
정을 기울여
사랑을 기울여
바쳐오신 아버지의 로고의 날과 날이
기름질 단 열매로 주름졌는가

- 이 땅에 자라는 나무들도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모두가 귀한 열매 맺도록 하는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소원...

아, 그이의 소원이
꽃으로 피고 열매로 드려온 이 강산
이 땅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수령님 손길아래

(시) 영원한 봄날의 사진

봄빛도 따스해라
원수님 안겨주시신 새 교복 받아안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거리와 마을 온 강산이
더 밝아진 4월의 이 아침

봄꽃처럼 제비처럼
맴시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다

멋쟁이 새 교복 너무 좋아
밤새도록 꺼안고 잠 못 들던 아이들이
만수대언덕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 고운 모습을
저저마다 수령님들께 보여드리고싶어
고마운 원수님 사랑 다 아뢰고싶어

온 나라 방방곡곡 퍼져간 나무 얼마
더나
수삼나무, 향오동나무, 금강국수나무...

그 푸른 일세마다에서
황금산 새 력사의 노래가 울리고
수령님 애국의 한생이 뿌리로 된 숲에서
이름없던 한그루 나무도
천만그루 만복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전설을 영원히 전하고있네

그 전설 꽃피는 이 땅에서
오늘은 수령님의 후손들이
푸른 숲을 펼쳐가네
수령님의 소원을
삼천리에 확언으로 수놓아가네

아, 아버지수령님 한평생 못 잊어
산천도 고마울에 삼가 머리숙이는가
행복에 겨운 초목들이
세월에 전해갈 노래를 부르네
수령님 그 품은 숲의 고향이라고

최 남 순

이 언덕에 담음쳐온 농글밭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웃은 몸에 꼭 맞는가
장깊은 눈길로 어루뉘어주시는듯
안고 정말 멋있다고
우리 수령님들
만시름 잊으시고 환히 웃으시는데

다시 뵈는것만 같아라
탄생일을 며칠 앞둔 잊지 못할 그 봄날
산촌마을 학교운동장에서
새웃 입은 아이들의 모습
한장한장 사진을 찍어주시던
수령님 그 자애로운 영상
4월의 그 봄날이 다시 온것만 같아라

평생에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시며
온 나라 아이들
사랑의 화폭에 다 담아주시리라는듯
몇번이고 자리를 옮기시며
날 저물도록 사진을 찍어주시던
아버이

그날의 사진속에
아이들이 꽃보다 더 곱게 웃는
조국의 무궁한 세월을 담아주시던
수령님 그 사진속의 봄날처럼
아이들의 웃음안고 흐르는 이 땅의 날과
날이며

수령님의 그 사랑 안고
우리 원수님 밤 지새우시며
교복색깔이며 모양 하나하나 고르시던
당중앙창가의 불빛이 저 웃음에 어려서
아이들의 웃음 그보다도 밝아라

한결 소매담은 야전복 입으시고
시련의 나날에도
아이들에게만은 새 교복 입혀주시던
장군님 사랑까지 다 합쳐
우리 원수님 전신걸의 찬바람 헤쳐
시며
천만가닥 해살을 모아 짜주시던 웃이어서
새 교복 그리도 포근해라

아이들의 웃음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며
자신의 모든것 다 바치시는 원수님
그 원신의 낮과 밤들이
행복된 저 모습들에 다 비껴있어라
행복없는 미래사랑의 봄날속에
우리 수령님들 더 환하게 웃으시여라

아, 눈부신 해빛속에
따스한 4월의 봄빛속에
수령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 교복 입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다
우리의 미래가 밝게 웃는다

태양절경적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백두산절세위인들과 로동계급》이
1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강남요업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일성은 《위대한 사랑의 길》이
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
였다.

가렬한 전희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태양을 확신하시며 공장
의 러전도 잡아주시고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쌓인 피로도 후실 사이없이 공장
을 찾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수령님의 위인상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
사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
혁명위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하

주제의 태양이라고 격찬하였다.
웅변 《세계가 본 주제 104
(2015)년 1월 1일》, 《달달과
바위》, 《자연과의 전쟁》, 《보기
좋게 써주리라》에서 철도성형
사적관 직맹원 최창희, 평양요업
기공장 직맹원 권경진, 최원신
직맹위원회 부위원장 독길철,
조선기공과화학화합연구소 로동자
김봉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며
강성조선의 새시대를 펼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언급하
였다.

세대의 첫아침 온 나라 인민
들을 머뭇이 축복해주시며 조선
로동당창건 일흔셋째와 조국해방
일흔한해를 맞은 뜻깊은 올해 우
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달달도 사상을 배우면 비위
를 짚을 것은 사상론의 철리
를 천명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격찬하는
웅변들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웅변을 들으면서 그들은 모든
산물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
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가슴에 새기
고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
파수문화라는 투쟁에 애국의 한
마음을 바쳐갈 굳은 결의를 가다
들었다.
출연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
하기 위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기회만을 엿보는

미국에 중국적협당을 선고하고
야말 피땀한 복수자들의 신념과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주시 은덕고급중학교 교원
김은정은 《조선의 정신》이라는
웅변에서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말고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으로 10년이 아
니라 11년사이애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시대를 펼쳐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 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
여오신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
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달양겨울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전체 출연자들은 위대 한
김일성동지를 주제의 태양으로
천만년 높이 모셔갈 총성의 한
마음을 안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노래를 불
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 기념 우표 발행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을 맞
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
(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를 창작
하여 내놓았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4(1965)년 4월 13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으로부터 새로 육창
김일성화를 받으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으며 그 아래부분에는 보고식물원
이 그려져있다.
우표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기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원형
우표의 중심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정중속에 활짝 피어난
김일성화가 형상되어있다.
주제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의 위인상과 김일성화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여주는 우표들은 우리 군대
와 인민에게 태양인종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차상보부의
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
총련합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조국과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지켜
주시였으며 주제적해외교포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모임 진행

대하여서와 항일혁명전쟁과 조
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강적
들을 타소하심으로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
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
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후 조선농업근로자투쟁을 창립
해주시고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동행자로 투쟁해나가도록 현명
하게 령도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언급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
의리,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에
주제조선의 100년사가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수령생위업의 새로운
경사로서 명철이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흐르시는
혁명령사자 영원히 흐르고있는
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리명철 농근맹중앙위원회 위
원장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밑에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농맹원군들과 농업근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스위스조선위원회와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파키스탄특명전권대사 꽃바구니 진성
라는 글발이 띄어져있었다.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
들을 보내어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들이 진성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셨으며 세계사주위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성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
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등의 글발이 띄어
져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베르트
마레고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
전권대사, 올레그 베르코노브
대사관 부부관이 진성하였다.
태양절경적 평양학생소년군
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시창 《원수님 계시여 영원한
태양절》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동창 《내가 나서 처음 배운
노래》, 무용 《명절의 기쁨》,
노래연곡 《제일자랑 만경대》,
《만경대의 나라 백두산의 나라》,
《만경대는 꽃동산》, 노래와 무용
《우리도 백두산으로》 등 다채로운
종합공연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숭고한 후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영원한 우리의 태양절》

너 맹일군들과 너 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진행
고 민족반대의 부강변명을 위한
군권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심이 장내에 끓어치는
가운데 시와 합창 《태양절을 노래
하세》, 《수령님품속에서 붉게
됩니다》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독창 《수령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시 《불멸의 미소》,
《한평생》 등 종합공연 출연자
들은 혁명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인간,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
유신인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넋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이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시니 그 그리운
장군님》, 민요제창 《철명아래
사파바다》 등에 담아 울려 퍼졌다.
중창 《대 계시여 한아라》,
손풍금과 합창 《북받은 인민의
노래》, 시 《우리 원수님》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가장 긍지
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넉넉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모임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뢰심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우리
녀성들의 맹세를 담은 시와 합창
《오직 한마음》,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로씨야에 가는 조선인민군대표단 출발

인민력부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대장 현영철동지를 단장으
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이 로
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로씨야에 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내각부총리 로두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로
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는 조르르의 해 개막행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일행 뉴델리 도착

인디아공화국을 공식방문
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

평양학생소년군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쳐
시며 후대들이 영원히 안겨갈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 내 조국을
지켜주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주는
가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
들은 아영소》, 기타와 노래
《우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
셨지요》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타악기를 위한 기악중주 《꽃
놀이》, 유희무용 《사랑의 교통
공원에서》, 노래품 《송도원
아영소는 원수님의 품》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
동으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
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찬 오늘
과 희망찬 미래를 약속되어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중앙 《원수님 사랑안고 달려
가자 미래로》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직
한 참된 소년혁명가, 강성조선의
기둥같은 역세기 준비해나가
려는 학생소년들의 총정교와 끝없는
평만을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훌륭히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
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전총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없는 그리움 위인칭송의 송가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에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오직 한 마음

청년중앙 예술선전대 공연을 보고

온갖 꽃이 앞을 다투어 피는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라는 추억깊은 노래가 울리는 속에 무용 《오직 한 마음》이 제 4차 4월의 봄 인민 예술축전무대에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오시고싶은 우리 인민 모두의 충정을 담아 함경북도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단독공연의 첫 종목으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일지생활 체험을 통하여 열렬 단심 어머니수령님을 굳게 믿고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보람 있고 행복 한 삶이 있고 희망이 미래가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체득하게 되였습니다.》

뜻깊은 경축무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위인칭송의 송가는 마땅히 이 노래로 시작되어야 하며 이 노래를 총적인 주제로 하여 공연전과정을 관통시켜야 한다는것이 도예술단 창작자,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연의 첫 종목도 이 노래가 울리는 속에 펼쳐지는 무용작품으로 선정하였고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철의 도시사람들의 불타는 충정을 반영하여 자신들이 출연하는 때 작품마다 이 노래의 사상이

뜨겁게 맥박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리키는 길은 우리의 삶이 꽃피어나는 길,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광이 담보되는 길이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인민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송가이기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는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격조높이 구가한 태양칭송의 송가이기여 공연은 첫 시작부터 관중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 그리움을 안고 인민의 마음 먼저 달려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다.

위하여 울려 퍼진 너성 4 중창 《만경대의 노래》는 무용 《오직 한 마음》을 통하여 앙양된 정서적 흐름을 타고 관중의 심장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유서깊은 집 프락앞에 서있듯 한 승연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인민모두가 받아안은 복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승연한 사상감정을 안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총정기 너성 독창과 무용 《철의 도시 사랑하》에 불은 눈이 내리네》로 다시금 분출되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99(2010)년 12월에 보아 주신 사연깊은 작품이다.

철생산성파로 우리 땅을 받들어 나가는것은 어제도 철의 도시사람들의 신조였고 오늘날도 그들의 신념이며 매일도 변함없을 그들의 삶의 좌우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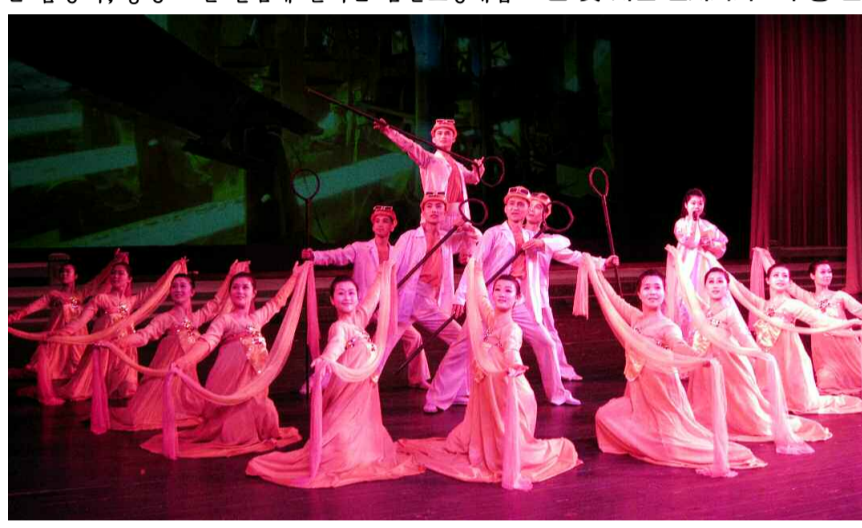
그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간직되어있다. 그 그리움이 불타올라 년산 19만능력의 체질설비로 27만대의 선철을 뽑아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살랐던 기철의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기상이 너성독창과 무용 《철의 도시 사랑하에 불은 눈이 내리네》로 형상되어 관중의 가슴가슴을 또다시 뒤흔들었다.

최장대를 역세게 틀어쥔 용해공들의 기백넘친 춤동작,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쇠물정형상한 쇠물정형상의 변화무쌍한 출몰작, 무대배경에 펼쳐지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전진하는 기상과 쇠물뿜보라는 등 주홍빛과 물보다 뜨거운 용해공들의 마음과 마음이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로 달려가고있다

것을 느끼게 하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그 감동깊은 화폭들을 보면서 누구나 영웅조선의 천리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영도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일찌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과 주체철생산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의 세계를 추억깊이 더듬어보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위인칭송의 송가는 세대의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졌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근



영원한 태양의 품속에 새겨진 청춘

오늘 우리는 나날이 젊어지는 시대에 살고있다. 매일, 매 시각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벅찬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하고있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무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의 공연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연전반이 열정과 패기에 넘치고있는 상상으로 일관된것이다. 공연종목으로 선정된 노래를 힘차게 울리었으며 《인민의 환희》, 《돌파하라 최첨단을》, 《라틴선열차》와 같이 라틴적인이면서도 량민적인 노래들이었다.

기백이 넘치는 예술적 형상은 무대가 통째로 움직이는듯 한감을 준다. 그리움의 무대에 펼쳐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으로 약동하는 공연은 관중자들도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조선청년의 긍지와 영예를 떨쳐온 있지 못할 년대들이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을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수령님,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

지나온 년대마다 청년중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전후복구건설의 노래를 힘차게 울리었으며 《물불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라고 신장으로 웨치면서 수많은 기념비적장조를들었다 《청년》이란 이름이 빛나게 하였다.

오늘 수백만 청년전위들은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청년들의 존엄도 살고 빛나는 력사의 고귀한 진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를 받으며 다시금 신장으로 걸감고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대국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 위대한 믿음과 사랑이 빛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필서한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 청년전위들은 지나온 년대들에 그려왔던것처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의 앞장에 남에 남다라 기적과 위훈을 떨치며 젊어지는 조국의 모습을 가꾸어가고있다.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이 끝수 록 그대따르는 마음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하기에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은 영원한 태양의 품속에서 값높은 찬송을 빛내이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걸어온 투쟁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맹세를 4월의 뜻깊은 축전무대에 펼쳐놓은것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무대 위에서 울려 퍼졌던 인상깊은 대사가 다시금 귀에 울려왔다.

우리는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바쳐진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선견제 창작가, 예술인들의 불타는 열정, 피라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적지 않는다. 공연종목마다 세차게 맥박치는 사상감정이 이들의 뜨거운 심장의 열기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공연이 관중자들에게 주는 크고도 깊은 여운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있기에.

조향미

여운이 큰 단막극들

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강의

함북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단막극 《유령의 새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화폭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하여 유령형사적경망사와 그의 딸이 강의하는 장면이다.

참관자는 평양에서 내려온 제대병사 한명, 그 한명의 참관자를 위해 수십년전엔 유령형사적경망사 정지를 지극한 강사가 해설강의를 한다.

수령님 땅에 오시던 도중 최고수령부를 호위하기 위하여 오는 인민군인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군인들과 인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고, 그러니 최고사령부호위에 한계대대를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군인들을 다른 방에게선으로 떠나보내고 이야기, 수령님들이 집주인을 깨우려고 하자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놀랄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고 하시며 발에 있던 낱알을 깔고 우뚝불을 피우시며 항일의 나날처럼 한밤을 지새우신 이야기...

참관자는 비록 한명이었지만 무대위에 선 극중인물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모든 관중이 마치 유령형사적경망사에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강의를 받는듯 한 심정이었다.

아뢰고 싶은 품작의 기쁨

있을 때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아뢰고 싶은 품작의 기쁨, 이것은 언택년의 농민들만이 아니라 언제나 수령님들을 못 잊어하는 이 나라 모든 농민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그리움의 분출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성원들이 집주인을 깨우려고 하자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이 놀랄수 있으니 깨우지 말고고 하시며 발에 있던 낱알을 깔고 우뚝불을 피우시며 항일의 나날처럼 한밤을 지새우신 이야기...

참관자는 비록 한명이었지만 무대위에 선 극중인물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모든 관중이 마치 유령형사적경망사에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강의를 받는듯 한 심정이었다.



온 나라 인민이 함께 부르는 심장의 노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곡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축전에 참가한 모든 단체들이 그 그러했지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은 관중들의 심금을 더 세차게 울려주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가슴을 뜨겁게 뜨겁게 하고 오늘날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총속에 일떠선 공전 같은 로동자합숙이 어려오는 사연깊은 일터이다.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어디서나 보았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했던 방직공처녀들과 마주한 관중들의 심정은 실로 류달했다.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복받은 주인공들, 과연 이들은 어떤 작품을 안고 무대에 나왔는가. 시와 합창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을 가슴에 받아안은 행복에 대한 노래가 절절히 울려나오기 시작

이때, 평범한 방직공처녀들이 소박하게 부르는 노래와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송고한 화폭으로 안아보게 하는 정경 대를 뜨겁게 울리는 위대한 사랑의 그 품이 있어 너와 나, 우리모두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피는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대에 오른 방직공들의 눈가에도, 관중자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올라 소리없이 두볼을 적신것은.

방직공들이 부르는 노래를 관중자들도모두 가슴속으로 따라 부르기도하였다.

어제 그들만이라고 하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생생전고집으로 그 길에서, 인민이 살고 인민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품모의 노래가 울리고 있다.

그렇다.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이 노래는 4월과 더불어 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속에 온 나라 인민이 함께 부르는 영원한 심장의 노래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노래,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민만이 부르려는 수령복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우리 조국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빛을 뿌릴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강조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단장인 차상보부의장이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을 하였다.

부의장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의 품에 안겨 태양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것은 우리에게 더없는 영광이기 위한 다례단성원모두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고있다.

지금 해외동포들이 살고있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겐나지 폴리코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대표단, 워런 굤마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일행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추비쉬 까지 쉬페 스타워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이

출연자들의 아쉬움은 커도

특장지구관광원합기업소 평화관람 예술소조원들

특장지구관광원합기업소 평화관람 예술소조원들은 이번 축전에 처음 참가하였다.

굴진공, 채환공, 전차운전공, 압축기운전공... 석탄전기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온 나라 관부들의 절절한 심정을 그 누구보다 더 격조높이 터치고 싶어 펼친 공연은 관중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나라의 석탄생산문제 때문에 늘 마음쓰며 10년만 끊어오던 환을 케고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응성이 다시금 귀에 울려오듯 하고 석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관부들의 건강과는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로동보호를까지 일심으로 마련해주시고

천이머이사랑을 거듭 부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서이다.

정녕 관부들을 위해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로고에 대하여 노래하자면 축전의 전기간 무대위에 올라와도 다할수 없는 예술소조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치러진 공연 시간은 길지 않다. 짧은 공연시간에 대한 출연자들의 아쉬움은 커도 관부들은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관부들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마음쓰며 10년만 끊어오던 환을 케고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응성이 다시금 귀에 울려오듯 하고 석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관부들의 건강과는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로동보호를까지 일심으로 마련해주시고

글 및 사진 지혁철



반제민족민주전선 만경대 방문

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밑에 자주독립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주조 무관단 만경대 방문

어엿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어 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 안고 고향집주변에 찾아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평양지구부 성원들 만경대 방문

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밑에 자주독립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주조 무관단 만경대 방문

어엿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어 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 안고 고향집주변에 찾아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우리 나라 팀 2015년 국제빙상호케이련맹 세계남자빙상호케이 3부류선수권대회에서 제 1위 쟁취

우리 나라 선수들이 2015년 국제빙상호케이련맹 세계남자빙상호케이 3부류선수권대회에서 제 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3일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에서 시작된 선수권대회에는 7개 팀이 참가하여 전면 경쟁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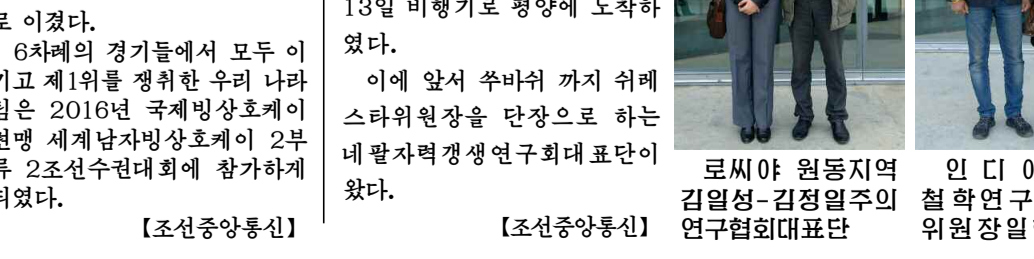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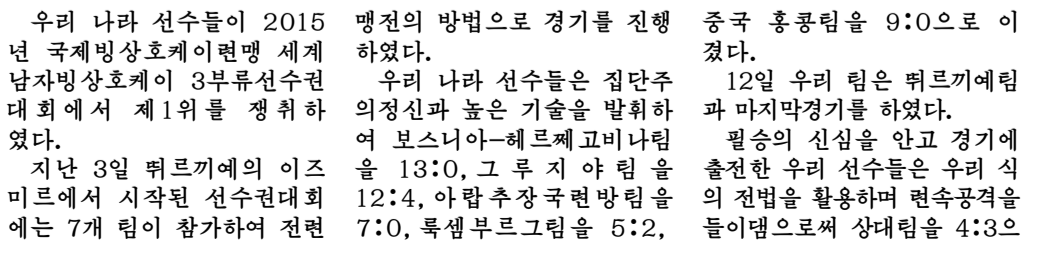
우리 나라 선수들은 집단주의 정신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팀을 13:0, 그루지야팀을 12:4, 아랍주장국방팀을 7:0, 룩셈부르크팀을 5:2, 중국 홍콩팀을 9:0으로 이겼다.

12일 우리 팀은 튀르키예팀과 마지막경기를 하였다.

결승의 심판을 안고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우리 식의 전법을 활용하며 연속공격을 들이밀며 4:3으로 상대팀을 이겼다.

6차례의 경기들에서 모두 이기고 제 1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는 2016년 국제빙상호케이련맹 세계남자빙상호케이 2부류 2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 도착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대표단, 워런 굤마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일행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추비쉬 까지 쉬페 스타워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이

【조선중앙통신】



